韓 國 保 健 看 護 學 會 誌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ume 26. No. 3, 518 - 531, December 2012

http://dx.doi.org/10.5932/JKPHN.2012.26.3.518
중심단어 : 여성, 결혼, 이민자, 스트레스, 측정도구

여성결혼이민자의 스트레스 측정도구 개발*

박 민 희** · 양 숙 자***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00년대에 들어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이 급증하여, 2010년에는 전체 결혼 건수의 약 8%를 차지하며(Statistics Korea, 2011), 국내에 결혼이주여성이 188,590명 거주하고 있다(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2012). 이민여성은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는 개인이며 이민자 남성이나 비이민자에 비해 정신건강문제에 취약할 수 있다(World Health Organization, 1997). 결혼이민은 여성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불평등을 양산한다(Joens & Shen, 2009). 일반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는 여성이라는 이유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이민자 신분 자체로 인해 사회에서 소외 받기 쉽고, 이주국의 생활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로 인해 스트레스에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Berry, Kim, Minde, & Mok, 1987). 현재까지의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신체적 건강상태나 건강행위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나(Ahn, 2008; Yang, 2010), 이들의 스트레스나 정신적 고충도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이다.

사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 대다수는 한국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들이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은 언어문제, 경제적 문제, 한국문화 이해 순으로 나타났으며(Chung et al, 2007), 이외에도 사회적 차별과, 가족과의 갈등, 및 자녀 양육의 어려움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Han, 2006; Moon, Kim, & Sim, 2009; Seol, Lee, & Cho, 2006). 뿐만 아니라,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에 와서 속았다고 느끼고 실망감이 크나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속수무책의 상황 등을 경험하며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2010).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스트레스를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부재로 이들의 스트레스를 타당성 있게 평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의 국내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 가족

* 본 연구는 박민희(2011)의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을 요약한 것임.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부 연구원(교신저자 E-mail: minipark@ewha.ac.kr)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부 부교수
투고일: 2012년 10월 6일 심사의뢰일: 2012년 10월 17일 게재확정일: 2012년 11월 21일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Park, Min Hee*
College of Health Sciences, Division of Nursing, Ewha Womans University
11-1 Daehyeon-dong, Seodaemun-gu, Seoul, Korea
Tel: 82-2-3277-4587 Fax: 82-2-3277-2850 E-mail: minipark@ewha.ac.kr

및 생활스트레스 등을 조사하였으나, 이들 연구에서 사용한 스트레스 측정도구는 외국의 도구를 번안하한 것으로, Sandhu와 Asrabad i(1994)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 McCubbin과 Patterson (1983)이 가족의 스트레스와 생활사건을 평가하기 위하여 개발한 가족의 생활사건과 변화척도(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 Abidin(1990)이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Parenting Stress Index) 등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신부를 받아들인 대만에서 실시된 Yang, Wang과 Anderson (2010)의 연구에서 사용한 스트레스 측정도구는 미국에 거주하는 구소련 출신 이민자를 대상으로 개발한 'Demand of Immigration Distress'로(Aroian, Norris, Tran, & Schappler-Morris, 1998), 이 도구의 속성 또한 이민자의 이민 스트레스 혹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이제까지의 국내·외의 여성결혼이민자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들은 이민, 문화적응, 양육, 생활 스트레스 등 일부분만을 측정하여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스트레스원에 의한 종합적인 스트레스를 파악하기 어렵다(Kang & Hwang, 2009; Kwon, 2009). 또한 특정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개발된 외국의 도구를 그대로 번역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결혼을 목적으로 이민 온 한국의 여성결혼이민자의 스트레스 속성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한국에서 생활하며 경험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스트레스를 정확하게 측정해내지 못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스트레스는 이민과정과 문화적응 차원뿐 아니라 새로 형성되는 가족과의 갈등 그리고 결혼 후 곧 직면하는 출산, 양육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어 일반 이민자가 겪는 스트레스와는 다른 스트레스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의 스트레스는 한국의 독특한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가족 갈등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스트레스를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타당도와 신뢰도를 갖춘 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러한 도구를 개발함으로써 앞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종합적인 스트레스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스트레스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스트레스 측정도구를 개발한다.
둘째, 개발한 도구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정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DeVellis (2011)가 제시한 도구개발 절차에 근거하여 여성결혼이민자 스트레스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는 방법론적 연구로 설계되었다.

2. 연구 절차

1) 문항 개발

예비문항을 구성하기 위해 여성결혼이민자의 스트레스에 대한 국내·외 문헌고찰과 도시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출신의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 결과를 활용하여 도구의 개념적 틀을 구성하였다. 초점집단 인터뷰는 3차례에 걸쳐 13명에게 실시되었으며, 주요질문은 '한국에 오신 후 어떤 경우에 스트레스를 받으십니까?', '한국에 오신 후 무엇이 가장 힘드셨습니까?', '스트레스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이었다. 개념적 틀을 근거로 6개 요인의 44개 문항에 대한 예비문항을 작성하였고,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구성된 예비문항은 간호학과 교수 3인, 여성결혼이민자 출신 보건소 통역요원 2인, 다문화센터 담당자 1

인, 보건소 다문화가정 담당자 1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에 의해 2차례에 걸쳐 내용타당도 검정을 받았다. 전문가의 의견으로부터 내용타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 CVI)를 산출하여 검정하였는데, 각 문항은 '매우 타당하다'를 4점에서 '전혀 타당하지 않다'를 1점으로 4첨 척도로 평가하게 하여 내용타당도 지수가 .8이상인 문항을 선정하였고 유사한 의미를 내포한 중복문항, 의미 전달이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은 문항이 있는지 등을 개방형 질문을 통해 의견을 받아 수정하였다. 내용타당도 검정을 거친 예비문항은 전문번역사를 통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로 번역하고, 이를 한국어에 능통한 원어민으로부터 내용타당성을 점검받아 수정·보완 과정을 거쳤다. 본 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서울의 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18명을 대상으로 예비도구 문항 대한 이해도 및 설문지 작성 소요시간 등을 확인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2) 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정

내용타당도 검정과 사전조사를 마친 예비문항에 대해 최종문항을 선정하고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정하기 위해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는 2012년 3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지역을 포함하기 위해 서울시 4개 구, 경기도 1개 시, 충청북도 1개 군, 충청남도 1개 군, 전라북도 1개 군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 359명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하였다. 설문조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보건소이용자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언어별로 번역된 설문지에 자가보고 하도록 하였다. 이 중 미완결된 설문지 36부를 제외한 323부가 최종 분석에 이용되었다.

(2) 구성타당도 검정

① 문항분석

제작된 문항이 양질의 문항인지 평가하기 위해 고전검사이론(classical test theory)과 문항반응이론(item response theory)에 의해 문항분석을 하였다. 고전검사이론에 의한 문항분석은 문항-총점 간 상관계수로 측정하였으며, 문항반응이론에 의한 문항분석은 등급반응모형을 이용하여 문항의 변별도와 위치모수를 측정하였다. 더불어, 각 문항을 제거했을 때 chronbach's α 값도 분석하였다.

② 요인분석

도구의 구성타당도를 검정하기 위해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양한 문항들 중 가능한 많은 부분을 설명하는 소수의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고, 요인회전방식은 각 요인의 상관성이 있다고 보아 직접 오블리민 회전(direct oblimin rotation)을 실시하였다.

③ 집단비교법

정신적 스트레스는 삶의 만족도와 밀접히 관련이 있으므로(Smith, Avis, & Saamann, 1999), 집단비교법에 의한 구성타당도 검정은 주관적 삶의 만족도에 따라 3개 집단으로 나누어 여성결혼이민자의 스트레스를 비교하였다.

④ 수렴타당도 검정

수렴타당도 검정은 같은 구성개념을 측정하는데 다른 측정도구를 사용하더라도 그 측정값이 서로 상관성이 높으면 도구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방법이다. 부정적인 스트레스 사건에 대응하지 못할 때 초래되는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우울로 보아(Park & Kim, 2000), Radloff(1977)가 개발한 우울 측정도구(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scale)를 사용하여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수렴타당도를 검정하였다.

(3) 준거타당도 검정

본 연구에서는 Cohen과 Williamson(1988)의 인지된 스트레스 측정도구(Perceived Stress Scale-10, PSS-10)를 준거도구로 하였다. 인지된 스트레스란 삶에서 경험하는 상황을 스트레스로 지각되는 정도로, 스트레스에 대한 일반적인 성향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여성결혼이민자의 스트레스의 외적 준거가 된다고 보아, 본 연구에서는 인지된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준거타당도를 검정하였다.

(4) 신뢰도 검정

도구의 내적 일치도를 평가하기 위한 신뢰도 검정은

Cronbach′s α 값으로 산출하였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 구성타당도 검정은 요인분석과 ANOVA, Pearson 상관계수를 이용하고, 준거타당도 검정은 Pearson 상관계수, 신뢰도는 chronbach′s α 값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문항분석은 R 2.14.2를 이용하여 잠재특성모델(latent trait model)이라는 Library를 사용해서 등급반응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3.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이화여자대학교 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심의에서 승인(IRB No. 2011-12-1)을 받아 진행하여, 모든 연구의 과정에서 윤리적 고려가 이루어졌다.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동의한 대상자에게만 자료 수집을 하였으며, 연구자는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과정, 연구를 통해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 점과 비밀유지가 된다는 점, 그리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한 후 연구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Ⅲ. 연구결과

1. 문항 개발

여성결혼이민자의 스트레스에 대한 문헌고찰과 초점집단인터뷰 결과 여성결혼이민자의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6개 요인과 9개의 하위 범주를 확인하여 개념적 틀을 구성하였다(Figure 1). 6개 요인은 문화 스트레스, 경제 스트레스, 사회 스트레스, 가족 스트레스, 정서 스트레스, 자녀양육 스트레스로 분류되었다. 각 요인별 하위범주는 문화 스트레스 요인은 문화차이와 언어문제, 경제 스트레스 요인은 경제문제, 사회 스트레스 요인은 차별과 사회적 고립, 가족 스트레스 요인은 남편과의 문제와 시댁과 갈등으로, 정서 스트레스 요인은 불안감, 자녀양육 스트레스 요인은 자녀양육 어려움으로 구성되었다. 개념적 틀을 근거로 예비문항을 작성하였는데, 문화 스트레스 요인 중 문화차이 6개 문항, 언어문제 영역 4개 문항, 경제 스트레스 요인 중 경제문제 5개 문항, 사회 스트레스 요인 중 차별 3개 문항, 사회적 고립 3개 문항, 가족 스트레스 요인 중 남편과의 문제 7개 문항, 시댁과 갈등 5개 문항, 정서 스트레스 요인 중 불안감 3개 문항, 자녀양육 스트레스 요인 중 자녀양육 어려움 8개 문항으로 총 4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44개의 예비문항에 대해 다섯 차례에 걸친 자문회의와 2차례의 전문가 내용타당도 검증과정을 통해 문항의 개념이 유사하거나 의미가 중복되는 경우는 통합하거나 삭제하였으며, 문항의 서술형태도 읽기 쉽고 간결하도록 수정・보완되어, 26개 문항이 선정되었다.

2. 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정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정을 위해 연구에 참여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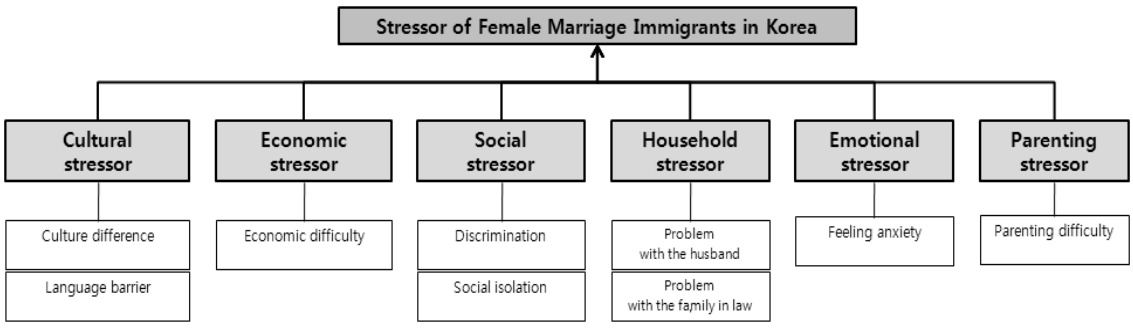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of Stress for Female Marriage Immigrants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출신 국가는 베트남이 46.0%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이 33.5%, 필리핀이 12.7% 순이었다.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30.7세로, 20대가 절반에 가까운 49.7%이었고 30대가 39.5%였으며, 대상자의 최종학력은 고등학교졸업이 44.8%로 가장 많았다. 체류기간은 평균 4.3년으로 1년 이상 3년 미만 거주자가 28.8%로 가장 많았다. 거주지역을 보면, 39.9%가 대도시, 25.7%가 중소도시, 농촌지역에 34.4%가 거주하고 있었다. 국적을 취득한 대상자는 전체의 28.9%였으며, 혼인상태는 98.4%가 유배우자 상태였다. 여성결혼이민자 중 자녀가 있는 경우는 66.8%였으며, 현재 임신 중인 경우도 13.7%였다. 동거가족은 남편과 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가 43.0%로 가장 많았으며, 남편과 둘이 사는 경우는 23.1%, 시댁식구와 함께 사는 여성결혼이민자는 31.2%이었다. 종교는 무교가 42.6%로 가장 많았고, 불교가 26.3%로 그 뒤를 이었다. 한국어 수준은 보통이 43.6%로 가장 많았다.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43.3%로 가장 많았으며, 주관적 경제수준은 여유있는 편이 10.6%, 보통이 64.7%. 어려운편이 24.7%로 나타났다. 현재 삶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54.4%가 만족으로 응답하였고, 보통이 37.0%, 불만이 8.6%로 나타났다.

2) 구성타당도

(1) 문항분석

문항의 양호도를 평가하기 위해 내용타당도 검정에 의해 선정된 26개 문항에 대해서 문항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1). 고전검사이론에 의해서 문항-총점 간 상관계수(corrected item total correlation coefficient)를 보았는데, 생활방식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내용의 문항 2를 제외하고는 문항-총점 간 상관계수가 .4이상이어서 변별력이 높은 문항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Seong, 2004). 문항반응이론에 의한 문항분석은 등급반응모형을 이용하여 문항의 변별도(item discrimination)와 위치모수(item difficulty)를 측정하였는데, 모든 문항의 변별도가 .65이상으로 적절한 문항으로 평가할 수 있었으나, 2번 문항의 경우 위치모수 1과 위치모수 2의 간격이 상당히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도구의 문항으로 적절치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Seong, 2002). 또한, 2번 문항을 제거하였을 때 Cronbach's α 값이 더 커지는 모습을 보여, 2번 문항은 도구의 문항으로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이로써 1개 문항이 제거되고 25개 문항이 구성되었다.

(2) 요인분석

도구의 구성타당도 검정을 하기위해 문항분석을 통해 선정된 25개 문항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 확인한 결과, KMO값이 .899로 요인분석하기에 표본이 충분함이 확인되었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통계치 역시 상당히 유의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χ^2=2585.824, p<.001) 25개 문항은 요인분석하기에 적절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여, 고유값(eigen value)이 1이상인 요인을 추출하고,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이 .35이상이면서 공통성(communality)이 .4이상인 문항을 선정하였는데, 1번, 10번, 12번 문항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제외시켰으며, 요인의 내용과 일치도가 낮은 19번 문항도 제외시켰다.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문항을 모두 제거하고 다시 요인분석을 하여, 고유값이 1이상인 요인이 4개가 추출되었고, 21개의 문항이 확정되었으며, 총 설명변량(accumulative variance)은 61.3%였다(Table 2). 제 1요인은 예비문항의 개념적 틀에서 가족 스트레스 요인과 경제 스트레스 요인이 합해진 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고유값 7.7로 36.6%를 설명하고 있어, 가족경제 스트레스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제 2요인은 개념적 틀에서 양육 스트레스 요인과 차별에 관한 내용이 함께 묶여 5개 문항으로 고유값이 2.5이고 12.1%를 설명하고 있어, 양육 및 차별 스트레스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제 3요인은 문화 스트레스 요인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고유값이 1.6으로 7.5%를 설명하고 있다. 제 4요인은 정서 스트레스 요인 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고유값이 1.1이며 5.1%를 설명하고 있다.

최종도구의 요인과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던 개념적 틀의 요인을 비교해보면, 예비문항에서는 문화 스트레스 요인, 경제 스트레스 요인, 사회 스트레스 요인, 가족 스트레스 요인, 정서 스트레스 요인, 자녀양육 스트레스 요인인 6개 요인으로 구성하였으나, 요인분석 후

Table 1. Item Analysis N=323

No.	Item	Corrected item total correlation coefficient	Item discrimination	Item difficulty				Alpha if item deleted
				parameter 1	parameter 2	parameter 3	parameter 4	
1	Being forced to follow Korean culture, unconditionally.	0.488	0.945	-1.877	-0.240	1.266	2.857	0.913
2	There is an immense cultural difference in lifestyle(e.g. housework-sharing, the way of carrying out household chore and child-raising etc.).	0.368	0.975	-2.049	-1.676	0.072	1.915	0.916
3	Korean cuisine does not please my pallet.	0.447	0.823	-2.402	-0.419	1.757	3.167	0.913
4	Being frustrated as I cannot completely express what I would like to say, because of my insufficient Korean.	0.553	1.231	-1.854	-0.923	0.312	1.638	0.911
5	The lack of clear communication triggers misunderstanding and tension with my husband and in-law family.	0.660	2.108	-1.064	-0.212	0.445	1.306	0.910
6	My limited Korean prevents me from going to a clinic or bank on my own.	0.496	1.589	-0.889	-0.052	0.551	1.513	0.912
7	The money promised to be sent to family in my home country is being held back.	0.617	2.501	-0.294	0.572	1.140	1.601	0.910
8	The post-marriage financial situation is not improving.	0.624	1.923	-1.011	-0.079	0.941	1.663	0.911
9	I feel socially discriminated against and face prejudice.	0.571	1.425	-1.686	-0.619	0.872	2.026	0.912
10	There is no one I can talk to about my personal issues.	0.541	1.741	-0.945	0.047	0.732	1.805	0.912
11	My husband and his family do not help me to become adjusted to my new life in Korea.	0.598	2.361	-0.304	0.7	1.263	1.987	0.911
12	Finding out organizations providing help for personal issues or job-seeking is challenging	0.428	1.152	-1.74	-0.138	0.946	2.162	0.913
13	I and my husband do not feel close to each other.	0.629	3.11	-0.124	0.606	1.174	1.639	0.911
14	My husband is reluctant to give me housekeeping money since he does not completely trust me.	0.664	3.908	-0.111	0.479	0.927	1.406	0.912
15	Most of important decisions at home are made by my husband and his family.	0.664	2.569	-0.883	-0.001	0.541	1.133	0.910
16	When being married, my husband deceived me about his financial situation, health etc.	0.510	2.83	-0.131	0.462	0.871	1.349	0.914
17	My husband barely has a sense of responsibility for financially supporting his own family.	0.503	2.942	-0.053	0.543	1.024	1.294	0.914
18	My in-law family ignore and/or scold me.	0.620	2.918	-0.124	0.698	1.334	1.811	0.911
19	My family bans me from going out freely, out of worries that I may run away.	0.582	4.035	0.154	0.711	1.171	1.413	0.912
20	I am anxious that my husband will demand a divorce.	0.455	2.684	0.376	1.087	1.678	2.34	0.914
21	I am anxious that my child will dislike me, since I am a foreigner in Korea.	0.467	1.612	-0.249	0.614	1.39	2.403	0.913
22	I think that I am delaying the linguistic and intellectual development of my children.	0.532	2.362	-0.434	0.102	0.635	1.468	0.912
23	My child seems to get disadvantaged since he/she is of mixed blood.	0.510	2.279	-0.429	0.36	1.335	1.99	0.912
24	I am having difficulties in guiding learning and homework for my child.	0.521	1.351	-1.787	-0.821	-0.041	1.375	0.912
25	It is difficult to get child-caring information, which is especially designed for woman married immigrants.	0.503	1.468	-1.583	-0.145	0.876	2.069	0.912
26	I cannot financially support my child like other Korean parents do.	0.562	1.868	-1.056	-0.262	0.587	1.277	0.911
								(0.915)

Table 2. Factor Analysis of Stress Measurement Items N=323

No.	Item	Factor 1 Household economic stressor	Factor 2 Parenting and discrimination stressor	Factor 3 Cultural stressor	Factor 4 Emotional stressor	Communality
17	My husband barely has a sense of responsibility for financially supporting his own family.	.822	-.059	.130	.060	.611
16	When being married, my husband deceived me about his financial situation, health etc.	.806	-.162	.013	.067	.616
14	My husband is reluctant to give me housekeeping money since he does not completely trust me.	.755	-.038	-.117	.097	.663
13	I and my husband do not feel close to each other.	.751	.197	.084	.006	.628
18	My in-law family ignore and/or scold me.	.675	.000	-.115	.104	.561
11	My husband and his family do not help me to become adjusted to my new life in Korea.	.617	.148	-.068	.002	.496
6	The post-marriage financial situation is not improving.	.607	.322	-.108	-.358	.672
15	Most of important decisions at home are made by my husband and his family.	.499	.030	-.396	-.039	.565
7	The money promised to be sent to family in my home country is being held back.	.484	.048	-.342	-.015	.501
25	It is difficult to get child-caring information, which is especially designed for woman married immigrants.	-.054	.834	.025	.093	.698
26	I cannot financially support my child like other Korean parents do.	.133	.816	.022	-.115	.693
24	I am having difficulties in guiding learning and homework for my child.	-.049	.772	-.042	.116	.657
22	I think that I am delaying the linguistic and intellectual development of my children.	-.131	.515	-.242	.397	.640
9	I feel socially discriminated against and face prejudice.	.235	.399	-.232	-.061	.421
6	My limited Korean prevents me from going to a clinic or bank on my own.	-.072	-.088	-.853	.172	.689
4	Being frustrated as I cannot completely express what I would like to say, because of my insufficient Korean.	-.102	.182	-.787	-.012	.711
3	Korean cuisine does not please my pallet.	.037	-.047	-.680	-.055	.452
5	The lack of clear communication triggers misunderstanding and tension with my husband and in-law family.	.236	.067	-.676	-.099	.669
23	My child seems to get disadvantaged since he/she is of mixed blood.	.070	.270	-.089	.676	.683
20	I am anxious that my husband will demand a divorce.	.465	-.089	.029	.651	.676
21	I am anxious that my child will dislike me, since I am a foreigner in Korea.	.084	.410	-.029	.510	.571
	Eigen value	7.692	2.540	1.567	1.075	Cronbach α = .903
	Explained variance(%)	36.628	12.094	7.462	5.119	
	Accumulative variance(%)	36.628	48.722	56.184	61.303	

Kaiser-Meyer-Olkin(KMO)=.897;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 χ^2=2148.695, p<.001
The item 22-26 of the subjects who don't have children are processed as missing data.

에 4개 요인으로 변경되었다. 경제문제를 나타내는 경제 스트레스 요인이 가족 스트레스 요인과 함께 묶여 가족경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자녀양육 스트레스 요인과 사회적 차별에 관한 문항이 함께 묶여 양육 및 차별 스트레스 요인으로 변경되었지만, 예비문항을 구성했던 요인이 요인분석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집단비교

최종문항으로 선정된 21개 문항에 대해서 집단비교법을 이용한 최종도구의 구성타당도는 주관적 삶의 만족도에 따른 스트레스를 비교하여 검정하였다(Table 3). 주관적 삶의 만족도에 따라 불만군, 보통군, 만족군으로 나누어 스트레스 정도를 비교한 결과, 세 집단 간의 스트레스 정도는 유의하게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으며(p<.01), 다중비교 결과 주관적 삶에 대해 불만군은 보통군, 만족군에 비해 스트레스 정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또한, 가족경제 스트레스 요인, 양육 및 차별 스트레스 요인, 문화 스트레스 요인, 정서 스트레스 요인 등에서도 주관적 삶의 만족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1).

(4) 수렴타당도

여성결혼이민자 스트레스 측정도구와 우울 측정도구의 Pearson 상관계수는 .5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1), 여성결혼이민자의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우울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또한, 가족경제 스트레스 요인, 양육 및 차별 스트레스 요인, 문화 스트레스 요인, 정서스트레스 요인에서도 우울과의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3) 준거타당도

여성결혼이민자 스트레스 측정도구와 인지된 스트레스 측정도구의 Pearson 상관계수는 .57로 유의하였으며(p<.01), 각 요인과 인지된 스트레스와도 유의하게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p<.01), 여성결혼이민자의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인지된 스트레스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4) 신뢰도

최종 도구의 내적 일관성에 의한 신뢰도 검정을 한 결과 여성결혼이민자의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21개 문

Table 3. Group Comparisons Between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N=305

	Life Satisfaction			F-value	p
	Satisfaction[a] (n=166)	Medium[b] (n=113)	Dissatisfaction[c] (n=26)		
Total Stress of FMI* in Korea†	1.19±.63	1.75±.68	2.14±.58	40.52	<.001
Household Economic Stressor	.94±.68	1.60±.85	2.18±.81	44.25	<.001
Parenting and Discrimination Stressor	1.54±.98	2.16±.82	2.45±.87	21.37	<.001
Cultural Stressor	1.69±.98	2.11±.89	2.49±.88	12.09	<.001
Emotional Stressor	.75±.71	1.12±.83	1.03±.95	7.78	.001

* FMI: Female Marriage Immigrants
† Post-hoc Comparison using Tukey: c>a(p<.01), c>b(p<.05), b>a(p<.01)

Table 4. Correlation Between Stress Measurement and CES-D Scale N=323

	CES-D scale**	
	Pearson Correlation	p
Total Stress of FMI* in Korea	.55	<.001
Household Economic Stressor	.57	<.001
Parenting and Discrimination Stressor	.33	<.001
Cultural Stressor	.31	<.001
Emotional Stressor	.33	<.001

* FMI: Female Marriage Immigrants
** CED-S Scal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Table 5. Correlation Between Stress Measurement and PSS-10 N=323

	PSS-10**	
	Pearson Correlation	*p*
Total Stress of FMI* in Korea	.57	〈.001
Household Economic Stressor	.53	〈.001
Parenting and Discrimination Stressor	.38	〈.001
Cultural Stressor	.40	〈.001
Emotional Stressor	.34	〈.001

* FMI: Female Marriage Immigrants
** PPS-10: Perceived Stress Scale-10

항에 대한 Cronbach's α 계수는 .903이었다. 각 요인별 신뢰도를 보면 9개 문항으로 구성된 요인 1에 대한 Cronbach's α 계수는 .892, 6개 문항으로 구성된 요인 2의 Cronbach's α 계수는 .812, 4개 문항으로 구성된 요인 3의 Cronbach's α 계수는 .797, 3개 문항으로 구성된 요인 4의 Cronbach's α 계수는 .692로 나타났다.

Ⅴ. 논 의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 검정을 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여성결혼이민자 스트레스 측정도구의 최종문항은 21개로, 4개 요인이 도출되어 총 설명력이 61.3%로 나타났으며, 구성타당도, 준거타당도, 신뢰도 검정을 통해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도구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고유한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스트레스 측정도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문헌고찰과 초점집단인터뷰를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문헌고찰과 초점집단인터뷰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의 스트레스 현상과 경험에 근거하여 개념적 기틀을 마련하고 문항이 개발되어 내용타당도를 높였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나타난 여성결혼이민자의 스트레스 요인은 가족경제 스트레스 요인, 양육 및 차별 스트레스 요인, 문화 스트레스 요인, 정서 스트레스 요인으로 문헌고찰과 초점집단인터뷰를 통해서 구축된 여성결혼이민자의 스트레스의 개념적 틀을 비교하여, 요인의 수가 6개에서 4개로 통합되었지만, 그 내용은 그대로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어서 높은 구성타당도를 갖췄음을 확인하였다.

제 1요인으로 묶여진 '가족경제 스트레스 요인'은 설명력이 36.6%로 가장 큰 설명력 값을 나타냈다. 여성결혼이민자는 가족관계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관계가 시부모와의 관계이며(Seol et al, 2006), 가부장적인 가족구조에서 불합리한 위치와 시댁 식구로부터의 무시와 갈등 등 부당한 대우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주요 스트레스 요인이다(Moon et al, 2009). 또한 남편과는 짧은 맞선을 통해 결혼하고, 한국으로 이주 후에도 언어와 문화의 차이가 있어 친밀한 관계형성이 어려우며, 한국의 남성 중심적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부부관계가 상하관계로 변질되기 쉬어(Han, 2006), 남편과의 갈등도 스트레스의 주요 속성이라 할 수 있다. 가족경제 스트레스 요인에는 가족문제와 더불어 경제문제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는 여성결혼이민자가 본국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 한국인 남편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Lee, 2005), 경제적인 충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에 대한 스트레스가 남편에 대한 스트레스로 연결되어지는 결과라 생각된다.

제 2요인은 자녀양육과 관련된 문항과 사회적 차별에 관한 5개 문항으로 구성된 양육 및 차별 스트레스 요인으로 고유값이 2.5로 12.1%를 설명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는 자녀의 출산과 양육, 자녀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양육과 관련된 정보 및 지지체계의 부족 등으로 보통의 한국인 주부가 느끼는 양육 스트레스와는 차원이 다른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으로 이주한 후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고 실질적으로 자녀양육을 수행하는 주체가 되며(Kim, 2010), 이에 지속적으로 자녀양육과 자녀교육의 어려움이 지적되어 왔다(Han, 2006). 여성결혼이민자 중 양육스트레스 고위험에 속하는 경우가 30%로 조사될 정도로(Seo et al, 2008), 이들의 양육스트레스는 공적인

기관으로부터 지지 및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문제이다(Kim, 2010). 특이할만한 점은 이러한 양육 스트레스의 내용이 자신이 외국인이이서 자녀의 언어발달에 대한 걱정 내지는 학습지도의 어려움을 호소할 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차별을 걱정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Seol et al, 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자녀를 출산하기 전에는 가족 이외의 사회적 관계는 현저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적 차별이나 고립감을 덜 느끼지만(Yang, 2008),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관계가 시작되고 자녀에 대한 사회의 차별적인 시선을 인지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스트레스는 커진다고 볼 수 있다. Kwon (2006)의 연구에서 보여지듯이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자신보다 아이에 대한 차별에 더 민감하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적 차별에 관한 문항이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문항과 상관이 높게 같은 요인으로 구성되었다고 보이며, 사회적 차별이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결합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도구는, 제 1요인 가족경제 스트레스 요인과, 제 2요인 양육 및 차별 스트레스 요인에 의해 48.7% 설명되므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스트레스는 가족, 양육 및 경제문제 스트레스에 의해 의미 있게 설명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주부가 시댁, 남편, 자녀 그리고 경제적 문제로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과 다르지 않은 결과로, Chon (1998)의 한국주부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측정도구 개발 연구에서 경제문제,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를 포함한 가족관계 요인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지녀 전체 스트레스의 42.6%를 설명하고 있는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한국의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주부로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속성이 여성결혼이민자에게도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화 스트레스 요인으로 명명된 제 3요인은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음식 차이, 한국어 표현의 어려움, 의사소통으로 인한 오해와 갈등, 언어문제로 일상생활의 제한을 포함하고 있는데, 음식과 언어 등 문화적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이주 초기에 주로 겪는 스트레스 요인이다(Choi, 2007; Han, 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이주초기 한국생활의 어려움으로 언어적 어려움(81.1%)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oi, 2007). 또한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서 처음 겪는 고충은 바로 음식 차이이며, 가장 일상적인 가족생활인 음식을 만들고 먹는 행위가 문화적 갈등을 경험하는 과정으로 나타났다(Han, 2006).

정서 스트레스 요인은 제 4요인으로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남편, 자녀에 대한 불안정한 정서를 나타내는 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Yang (2008)의 연구에 의하면 남편이 자신을 싫어해서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지에 대한 불안이 한국에서의 삶을 위협하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여성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이나 신분결정이 실질적으로 남편에 좌우되어(Pyo, 2009), 이들의 불안감은 남편과 연관되어져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는 외모가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 가난한 나라 출신 여성이라는 이유로 아내로서 엄마로서 위치가 취약한데, 자신처럼 아이도 차별받지 않을지에 대한 불안감과 미안함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드러났다고 사료된다.

현재까지 한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총체적인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도구의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Kwon (2009)의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척도'는 여성결혼이민자 고유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잘 반영하였으나 문화적응 스트레스만을 측정하는 단점이 있지만, 본 연구의 도구인 여성결혼이민자 스트레스 측정도구는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을 밝혀서 통합한 도구로 총체적인 스트레스 파악이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도구는 개발과정에서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다 국가의 여성결혼이민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폭넓게 도구의 활용이 가능하며, 문헌고찰과 초점집단인터뷰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 가족경제, 양육 및 차별, 정서 스트레스 요인을 반영하여 문항을 구성하고 이를 다시 타당도 및 신뢰도 검정 절차를 거쳐 여성결혼이민자의 스트레스 요인을 정확히 확인하여 타당도 높은 도구가 개발되었다고 사료된다.

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스트레스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정하기 위해 시행된 방법론적 연구이다. 문항은 문헌고찰과 초점집

단인터뷰를 통해 개발되었고, 전문가 자문과 내용타당도 검정을 거쳐 6개 요인 26개의 문항이 구성되었다. 구성된 문항은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로 번역되고 사전조사를 거쳐 문항의 이해도를 높였으며, 여성결혼이민자 323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정한 결과, 4개 요인 21개 문항으로 구성된 자가보고 형식의 도구가 완성되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여성결혼이민자 스트레스 측정도구는 타당도 및 신뢰도가 검정된 도구이므로,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실무 및 연구영역에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도구는 기존의 이민자 스트레스 또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도구가 반영하지 못했던 여성결혼이민자의 종합적인 스트레스 요인을 잘 반영하여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스트레스를 타당도나 신뢰도 높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한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스트레스를 평가하고 다른 변수와의 관계를 평가하여 스트레스를 예방하거나 경감시키는 적절한 중재방안을 연구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본 도구는 문항의 구성 및 타당도 신뢰도 검증과정에서 아시아권 출신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여 타 권역국가 출신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제한적이며, 한국의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공통된 스트레스를 하나의 도구에 담아 출신국가에 따른 문화적 배경에 의해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또한, 도구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표본수를 확대하여 타당도 검정과 시기를 달리한 조사-재조사 신뢰도 검정을 제언하며,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여성결혼이민자 스트레스의 구성요인을 재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Lutz,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Ahn, Y. H. (2008). Health status and health behavior of immigrant women married to Korean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2*(1), 18-26.

Aroian, K. J., Norris, A. E., Tran, T. V., & Schappler-Morris, N. (1998).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demands of immigration Scale. *Journal of Nursing Measurement, 6*(2), 175-194.

Berry, J. W., Kim, U., Minde, T., & Mok, D. (1987). Comparative studies of acculturative stres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1(3),* 491-511.

Chon, K. K. (1998). Life stress coping styles of housewives. *Journal of Rehabilitation Science, 14*(1). 39-59.

Choi, W. S. (2007). A study on the social-cultural adaptation of foreign wives in Korea. *Journal of Asian Women, 46*(1), 141-181.

Chung, K. S., Kim, Y. H., Park, K. E., Park, J. H., Lee, S. A., & Lee, E. A. et al (2007). *Survey of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s in Gyeonggi-do family, and research of policy support services*. Report of Gyeonggido Family & Women Development Institue.

Cohen, S., & Williamson, G. (1988). Perceived stress in a probability sample of the United States. In S. Spacapan & S. Oskamp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health*(pp. 31-68). Newbury Park, CA: Sage.

DeVellis, R. F. (2011). *Scale Development: Theory and Applications* (3rd ed.).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Han. G. S. (2006). Family life and cultural encounter of foreign wives in rural area. *Korean Society and Cultural Anthropology, 39*(1), 195-243.

Jones, G., & Shen, H. (2008). International marriage in East and Southeast Asia:

trends and research emphases. *Citizenship Studies, 12*(1), 9-25.

Kang, H. O., & Hwang, H. W. (2009). The effects of perceived family stress and family resilience on family adaptation of married migrant women.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31*, 55-78.

Kwon, M. K. (2006). *A study on perspective of educational culture in multicultural society with life experiences of immigrant married 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ong-A University, Busan.

Kim, H. K. (2010). A subjectivity study of types for stress in immigrant women of multicultural families who married to Korean men. *The Women's Studies, 78*(1), 119-158.

Kim, Y. J. (2010). Childbirth and childcare policies for marriage migrant women and their characteristics. *Korean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3*(1), 51-73.

Kwon, B. S. (2009). The effects of Korean ability and self-esteem on acculturative stress of marriage-based immigrant women : focused on Vietnamese, Filipino, and Chinese women in Daegu.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1*(2), 5-32.

Lee, H. K. (2005). Marriage migration to South Korea: issues, problems, and responses. *Korean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28*(1), 73-106.

McCubbin, H., & Patterson, J. (1983). Stress: The 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 In E. Filsinger (Eds.), *Marriage and family assessments: A source book for family therapy*. Beverly Hills, CA: Sag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2012). *Foreign residents data of local governments.* Retrieved April, 20, 2010, from http://www.mopas.go.kr/gpms/ns/mogaha/user/userlayout/bulletin/userBtView.action?userBtBean.bbsSeq=1039051&userBtBean.ctxCd=1258&userBtBean.ctxType=21010005&userBtBean.categoryCd=.

Moon, S. S., Kim, C. H., & Sim, M. G. (2009). Stress, marital satisfaction, and needs for help of immigrant women in Korea.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3*(1), 101-112.

Park, H. N., & Kim, M. J. (2000). Health promoting lifestyle, stress, and depression of the college female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14*(2), 318-331.

Pyo, M. H. (2009). Legal Aspects on the national protection of marriage immigration women in Korea. *Korean Comparative Public Law Association, 10*(3), 97-120.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r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Sandhu, D. S., & Asrabadi, B. R. (1994). Development of an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preliminary findings. *Psychological Reports, 75*, 435-448.

Statistics Korea (2011). *E-national indicator: Status of international marriage.* Retrieved April, 20, 2011, from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2430ya.

Seol, D. H., Lee, H. K., & Cho, S. N. (2006). *Marriage-based immigrants and their families in Korea: Current status and policy measures.* Report of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Seong, T. J. (2004). *Theory and Practice of Item development and analysis* (2nd ed). Seoul: Hakjisa Publisher.

Seong, T. J. (2002). *Educational evaluation.*

Seoul: Hakjisa Publisher.

Smith, K. W, Avis, N. E., & Assmann, S. F. (1999). Distinguishing between quality of life and health status in quality of life research: A meta-analysis. *Quality of Life Research, 8*, 447-459.

World Health Organization (1997). *Health issues of minority women living in Western Europe*. Retrieved April, 25, 2011, from http://www.euro.who.int/document/e60522.pdf.

Yang, S. J. (2010). Health status, health care utilization and related factors among Asian immigrant women in Korea.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4*(2), 323-335.

Yang, S. M. (2008). *A study on multicultural counseling in Korean situation based on the enculturative stressors, stress responses of marriage migrant women in rural area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Yang, Y. M., Wang, H. H., & Anderson, D. (2010). Immigration distress and associated factors among Vietnamese women in transnational marriages in Taiwan. *The Kaohsiung Journal of Medical Sciences, 26*(12), 647-657.

ABSTRACT

Development of Measurement of Stress for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Park, Min Hee (Clinical faculty, Division of Nursing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Yang, Sook Ja (Associate Professor, Division of Nursing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develop and test a measurement for assessment of stress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Methods**: Forty four preliminary items were initially developed based on literature review and focus group interviews. Those items were evaluated by experts for content validity, resulting in six factors and 26 items. The 26 items were translated into Chinese, Vietnamese, and English by professional translators and were reviewed by native speakers of each language who are fluent in Korean. For testing validity and reliability, data were collected from 323 female marriage immigrants residing in five regions in Korea. **Results**: As a result of item analysis, 25 items were selected. Factor analysis yielded 21 items in four factors, including 1) household economic 2) parenting and discrimination 3) cultural and 4) emotional stressors, explaining 61.3% of the total variance of stress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The Cronbach's alpha reliability coefficient was .903 for the overall instrument and .692-.892 for four factors. **Conclusion**: Measurement of stress for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has high validity and reliability. Therefore, this measurement may be utilized for systematic assessment of stress and for identification of areas of support for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Key words : Female, Marriage, Immigrants, Stress, Measurement